

## 업재식 원안위 위원장, 주요국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화상회의

업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6시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화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등 9개국 규제기관장들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기관장들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대응 현황과, 팬데믹 이후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안전문화와 조직 효율성에 대해 각 회원국의 관점과 실천사례를 공유하였다.

업재식 위원장은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화상회의 및 서면검사 등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약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검사체계에 대해 지속 고민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및 원자력 사업자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일본의 국가 현황 발표 이후 업 위원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게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방안에 대해 더 고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도쿄전력이 제출할 처분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와 신속·투명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였다. *KMIF*

##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5월 14일(금)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허가는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본원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①한울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②한빛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를 반영하고, ③한빛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④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한울3,4호기 주 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1차)을 보고받다. 기타사항으로 피동축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다.

한편, 2020년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이다. *KMIF*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KMIF*